



관내 동향

- **사천시, 관내 항공부품업체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지속**
 - 사천시, 「사천시 수도급수조례」 개정 후 관내 49개 항공업체의 5~7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30% 감면키로 함
 - 추가로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성금 모금액 7,580만 원으로 나머지 요금 70%를 지원하여 기업체는 수도요금 100% 감면효과 누림
 - 시는 지난 3월부터 4차에 걸쳐 관내 항공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7개 분야(기업규제, 금융, 고용, 기업지원 등) 12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음
 - 접수된 건의사항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요청 및 잡목 제거 등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처리완료하고, 항공부품 검·인정 비용 지원, 법률 지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검토 중임

- **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작전 재개**
 - 추락사고로 운항을 중지했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8일 해병대1항공대대에서 작전비행을 재개
 - 해병대는 지난 2018년 7월 사고조사 결과 후속조치 완료 후 작전 재개를 위해 약 16개월간 4단계 비행 재개 훈련을 실시함
 - 특히 사고 원인이었던 로터마스터는 국제품질보증과 제정과정의 열처리 오류방지, 비파괴검사 인원 증원 등으로 품질보증 시스템이 강화돼 마린온의 비행 안전성 및 신뢰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

□ 美 GE, KAI에 한국형 전투기 'KF-X' 엔진 인도

- 한국형 전투기(KF-X)에 탑재될 미국 제너럴일렉트릭(GE) 엔진 'F414-GE-400K' 엔진이 인도됨
- GE의 KF-X 엔진 공급은 지난 2016년 유로제트 'EJ200' 엔진과의 경합에서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이루어짐
- GE는 내년 말까지 F414-GE-400 엔진 15개를 시제기용으로 납품할 계획
- KF-X는 오는 2022년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오는 2026년 개발 완료할 예정



KF-X

- 최대속도 : 마하 1.81(시속 2천200km)
- 항속거리 : 2천900km
- 이륙중량 : 2만5600kg
- 최대추력 : 4만4000lb(파운드)
- 최대탑재량 : 7천700kg



도내 동향

□ 김경수 경남지사, 위기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

- 경남도,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도내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기간산업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
- 김 지사 건의에 대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'항공제조업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.'고 답함
- 김 지사는 지난달 18일 광주에서 열린 시·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국산 헬기 수리온 구매를 건의하는 등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
-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혜택이 있고, 기간산업 업종으로 지정되면 기간산업안정 기금 지원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음



국내 동향

□ 12월부터 새 항공기 도입시 정비능력 평가

- 국토교통부, '항공안전법' 일부 개정하여 올해 12월부터는 항공사가 새 항공기 도입할 때 정비능력 평가
- 지금까지는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사로 하여금 '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'을 확보하도록 권고
- ▲진에어 ▲에어부산 ▲에어서울 등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의 경우,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항공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옴
-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항공사와 의견수렴회의, 공청회,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항공기 기종(대형기·소형기),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특성을 고려한 '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'을 마련 중

□ 머스크의 스페이스X, 한국군 통신위성 쏜다

- 지난달 최초의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오는 7월 둘째 주,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한국군 전용 통신위성 '아나시스 2호' 발사하기로 잠정 결정
- 아나시스 2호는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으로 아나시스 2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한국 군은 최초의 군 전용위성을 보유하게 됨
-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록히드마틴社 F-35A 스텔스 전투기를 택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 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한 **절충교역***에 의해 제작됐으며, 록히드마틴은 그 뒤 에어버스와 군 통신위성 제조를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에어버스는 자사 통신위성 '유로스타 E3000'을 기반으로 아나시스 2호를 제작

*절충교역: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기술 이전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



해외 동향

□ 세계 항공업계 어닝쇼크…IATA “올해 적자 100조 넘을 듯”

-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항공업계가 올해 840억 달러(약 100조7,160억 원)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가 전망
- 여행 제한조치 등 영향으로 4월 항공승객은 지난 해 대비 94.3% 감소
- IATA, 2021년에도 세계 항공업계가 160억 달러(약 19조1840억 원) 적자 전망(빨라야 2022년에야 적자 해소)
- 현재 운항에 나서지 못한 채 서 있는 항공기는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4,000여 대이며,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은 올해 들어 600건 넘는 주문이 취소된 상태

□ 프랑스, 에어프랑스 · 에어버스에 20조원 지원

- 프랑스 정부,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와 국영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등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(약 20조3,200억 원)를 지원할 예정
 - 정부의 지원에는 6억 유로 상당의 급유 탱커와 드론 헬리콥터 주문 등 정부의 직접 투자와 보조금, 대출 보증 등이 포함
- 홍콩 정부, 홍콩 최대 항공사 캐세이퍼시픽 회생을 위해 ‘항공(Aviation) 2020’이라는 공기업을 만들어 캐세이퍼시픽 지분의 6.08%에 해당하는 우선주 195억 HKD(약 3조520억 원)를 매입하고, 78억 HKD(1조 2,207억 원)를 단기 대출해주는 방안을 발표
- 독일 정부, 지난달 독일 국적의 유럽 최대 항공사 루프트한자에 90억 유로(약 12조1,790억 원)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
 -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(KfW) 대출, 연방경제안정화기금(WSF) 지원 및 지분 20% 매입을 통한 부분 국유화 등이 골자

작성일	2020. 6. 16.(화)	보고일	2020. 6. 17.(수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박예지(055-831-3470)